

서술구 구조 *

한재현 **
(승실대학교)

Han, Jae-Hyeon. 1998. Structure of the Predicate Phrase. *Linguistics*, 6-1, 65-9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of the small clause in the predicate structures. There are two types of the small clauses in Korean. The one type is incomplete complement structure such as the finite tense clause and nonfinite tense clauses. For instance, the former type is John-ka Mary-eul buza-ta-ko mitunta(John believes Mary to be rich) and the later type is John-ga bal-i put-ke geuless-ta (John walked so that his feet were swollen).

In the analysis of the small clauses, we first review the problems of their argument structures and advocate the PrP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small clause analysis. According to the PrP functional category we describe the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s of the verbs and so-called secondly predicates in Korean. Especially the small clause structures, whether they have tense or not, can be classified as the ordinary, exceptional, and small clauses under the PrP functional analysis. (Sungsil University)

1. 서론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이후로는 국어라 칭한다)의 서술구조 가운데 소절을 중심으로 이들 소절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두 개 이상의 단문으로 구성된 복문 안에 내포된 보어절의 유형을 개관한다. 다음으로 여러 유형의 보어절 중에서 영어의 소절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들 분석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살펴본다. 특히 이 소절구조를 분석하는데 PrP 라는 기능범주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PrP 기능범주가 한국어 구조분석

* 본 논문은 1996년도 승실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승실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에도 일반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어 서술어의 의미를 밝히겠다.

2. 보어절의 종류

둘 이상의 절(*clause*)로 구성된 구조를 복합문장이라고 칭한다. 이 경우 그 결합된 절의 기능에 따라 등위접속문이 되기도 하고, 종속접속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문의 통사구조를 밝히기에 앞서 단문의 내면구조를 밝히는 것이 선결조건이라 본다. 이 구조를 분석할 때 문법의 틀에 따라 한 문장이라도 그 구조를 서로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보어절을 하위 분류할 때 한정자절(*Finite Feature*)과 시제자절(*Tense Feature*)을 근거해서 그 절을 분류했다 Huddleston (1984: 208-23).

보어의 기능을 하는 한정절의 종류는 아래 예문처럼 a-c 세 종류이고 비한정절은 d 한 종류이다.

- | | |
|--|---------------|
| (1) a. [She assumed] that he was right. | Declarative |
| b. [She asked] who I was. | Interrogative |
| c. [She remembered] what a struggle it had been. | Exclamative |
| d. [She demanded] he be told. | Passive |

그리고 (1d)의 비한정절은 다시 두 유형으로 세분하면 아래 (2a)와 (2b)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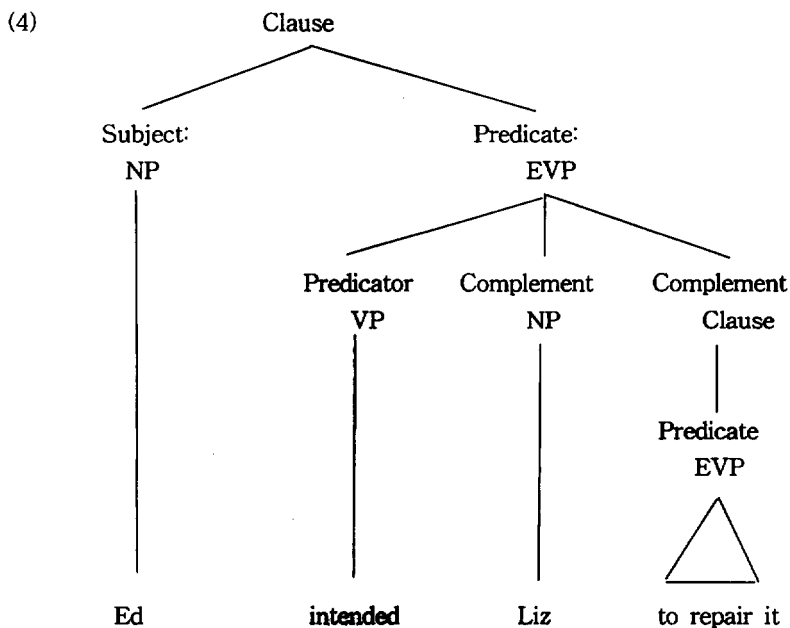
- (2) a. He tried to sell it.
 b. She advised me to do it.

위 두 문장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설명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두 문장의 외견상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면 (2b)는 부정사 앞에 명사구의 존재 여부이다. 즉 (2b)에는 명사구 *me*가 있는데 반해서 (2a)에는 이러한 명사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이 비한정절은 보어기능을 하는 네 종류의 시제 없는 동사구(VP)로 아래와 같이 다시 세분할 수 있다.

- | | |
|--------------------------------------|----------------|
| (3) a. Ed intended Liz to repair it. | base kind,+ to |
| b. Ed let Liz repair it. | base kind,- to |
| c. Ed remembered repairing it. | -ing kind |
| d. Ed had it repaired by Liz. | -en kind |

(3)에서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구 *Liz*는 의미상 부정사의 주어 기능을 하기보다 본동사의 목적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Huddleston (1984:216). 따라서 (3a)의 통사구조¹는 (4)와 같다.



또한 한정자질과 시제자질을 근거하여 보어절을 분류할 때 그 종류가 셋이 된다.

1. 다음과 같은 수행도는 삼분지의 분석(ternary branching)인데 Huddleston은 삼분지분석을 채택하고 있다.

- (5) a. [I hope] that they are moved. Finite; tensed
 b. [I insist] that they be moved. Finite; non-tensed
 c. [I wouldn't let them] be moved. Non-finite; non-tensed

(5)에서 동사의 굴절로 볼 때 (5b)와 (5c)는 시제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정자질로 볼 때 (5a)와 (5b)는 동일한 자질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한정자질에 의한 분류를 더욱 세분하면 보통절, 예외절, 및 소절의 세가지 구조적 유형의 절보어로 분류하고 그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6) a. I knew [that you'd turn up] (declarative)
 b. The judge ordered [that the sentence be carried out] (imperative)
 c. He asked me [whether I was leaving] (interrogative)
 d. I noticed [what a pretty dress she was wearing](exclam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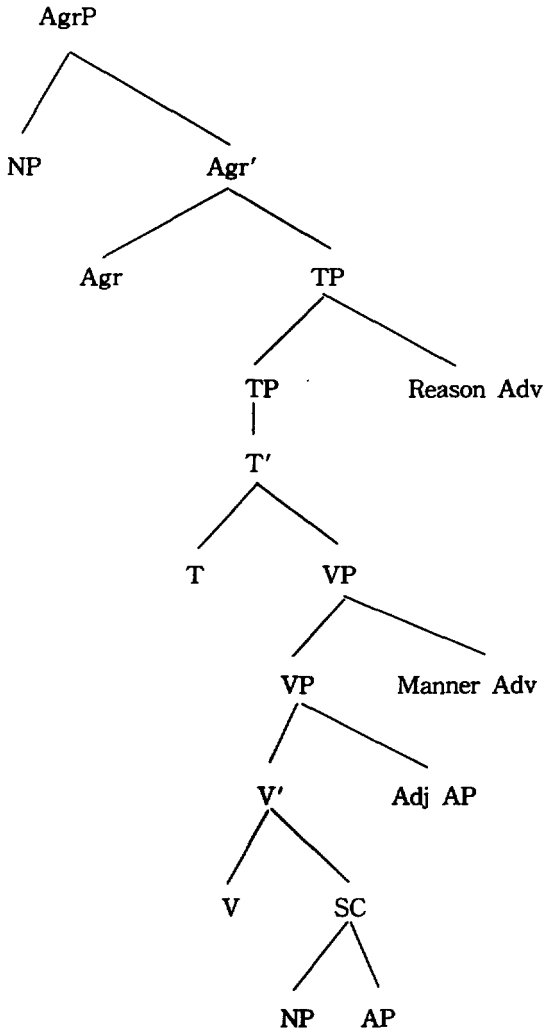
(6)에서 보는 것처럼 절보어는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또는 감탄문이 되기도 한다 (Radford(1988: 353-61)). 이와 같이 주절동사의 종류에 따라 보여 기능을 하는 보통절의 종류가 다름을 볼 수 있다.

3. 서술구의 통사 및 의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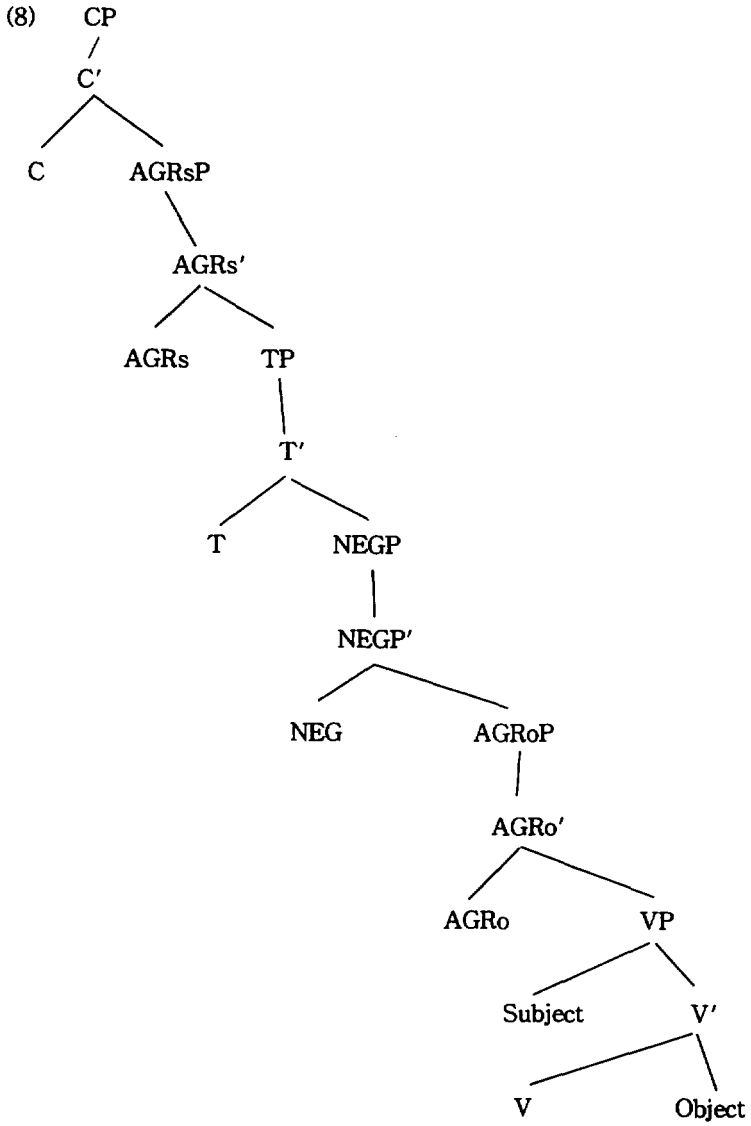
앞장에서는 서술구조를 이루는 보어절의 전통적인 분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소절 가운데 본 고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소절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종래의 논의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소절에 대한 구조 분석에 있어서도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B에서는 AgrP(=IP)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7)



(7)의 수형도에서 맨 밑에 있는 동사의 보충어는 정상적 문장과는 달리 시제를 포함하지 못한 소절이다. 그런데 반해서 Marantz(1995:364)는 CP의 계층구조를 더 세밀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8)에서는 AGRP를 AGRsP 와 AGRoP 둘로 세분하고 NEGP를 새롭게 설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7)과 (8)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또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기저에서 VP 안에 설정되는 가설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목적어의 위치에 올 수 있는 성분은 NP뿐 아니라 보통절, 예외절, 또는 소절 등도 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소절의 통사구조를 수용할 때 소절 통사범주 설정도 달라질 수 있다.

3.1. IP분석

보문 소절의 통사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9) S 범주: Chomsky(1981), Rothstein(1983)
- S' 범주: Kitagawa(1985)
- 술어구: Stowell(1981,1983)
- 부가구조: Chomsky(1986)
- INFL': Hornstein & Lightfoot(1987)

이러한 다양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김영현 (1992:23)에서는 보문 소절 (complement small clauses)과 부가소절(adjunct small clauses)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소절구조를 IP로 가정한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통사자질 복합체로 C와 I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0) a. C ---> [αWH, αFINITE]
- b. that/e = [-WH, +FINITE] for/e = [-WH, -FINITE]
- whether = [+WH, +/-FINITE] if = [+WH, +FINITE]
- (11) a. I ---> [αTENSE, αAGR]
- b. [+TENSE] ---> [αPAST]
- [+AGR] ---> [α NUMBER, β PERSON]
- c. 서법동사/e = [+TENSE, +AGR] to/e = [-TENSE, -AGR]

(10)과 (11)에 따라 소절의 통사구조를 [NP XP]로 일반화하고, [XP]의 범주들을 PP, AP, NP, 또는 VP라고 예시하였다. 즉 이런 보어소절의 통사구조[NP XP]를 IP로 가정함으로써 구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 (12) a. I consider [_{IP} John [_{I'} [_I e] [_{AP} honest]]]
- b. You'll soon find [_{IP} John [_{I'} [_I e] [_{NP} a genius at physics]]]
- c. They expect [_{IP} John [_{I'} [_I e] [_{PP} out of the team]]]

위와 같은 구조는 모든 소절이 IP이며 이 IP의 핵인 I는 [-TNS, -AGR]의 자질을 가진 공범주라는 것이다. 또 소절의 술어 기능을 하는 구조의 성분이 VP, AP, NP, 혹은 PP라는 것을 (12)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 즉 SC의 구조는 (12a)에 분석된 IP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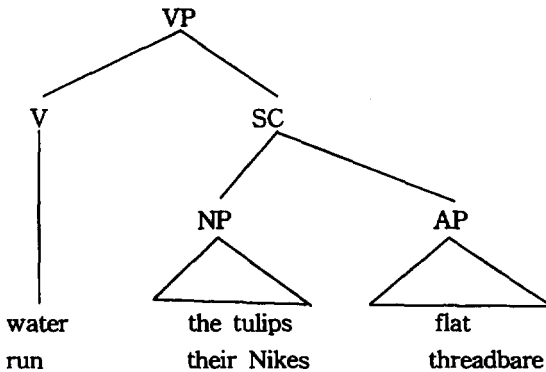
3.2. 삼분지 분석

소절의 구조를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와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구조의 세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Carrier-Randall, 1992:174-177).

- (13) The gardener watered the tulips flat. (Transitive resultatives)
- (14) The joggers ran their Nikes threadbare. (Intransitive result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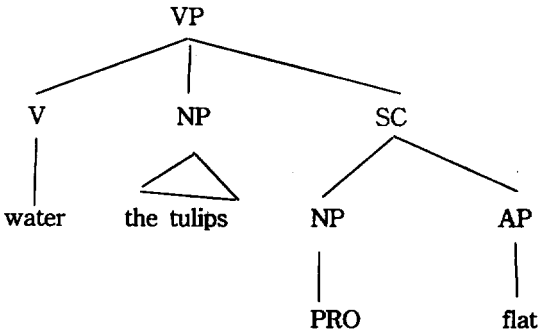
본동사의 통사 범주와는 관계없이 소절의 구조를 이분지 소절분석(The Binary SC Analysis), 혼성 소절분석(The Hybrid SC Analysis), 및 삼분지 소절분석(The Ternary SC Analysis)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 a. The Binary S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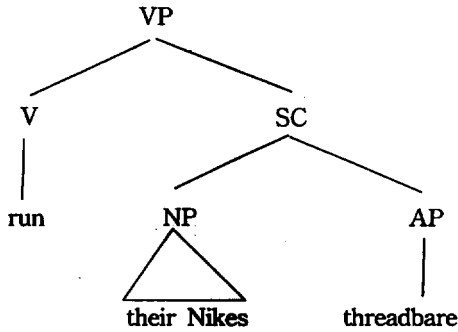


b. The Hybrid S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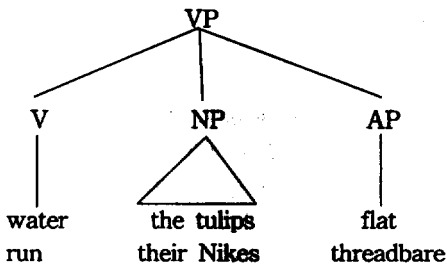
(1) Transitive resultatives



(2) Intransitive resultatives



c. The Ternary Analysis



혼성 소절분석은 결과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는 삼분지 구조이고 자동사일 경우는 이분지 구조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분지 소절 분석이나 삼분지 소절 분석에서는 결과동사가 자동사거나 타동사거나 그 통사구조는 같다.

위의 세 가지 분석을 동사의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로 검토하면 삼분지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Carrier-Randall (1992:176-183)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water*와 같은 타동사는 두 개의 논항(argument)을, *run*과 같은 자동사는 행동주(agent) 논항 한 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지를 의미역망(θ -grids)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두 항목 소절분석에 의한 결과절의 의미역망이다.

(16) θ -Grids under the Binary SC Analysis

	Basic verb	Resultative verb
water	agent [theme]	agent [r-event]
run	agent	agent [r-event]

위 (16)에서 보듯이 두 개의 동사가 기본동사로 쓰일 경우 의미역망이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결과성 동사(resultative verb)에서 보듯이 자동사의 구조에서나 타동사의 구조에서나 의미역망의 구별이 안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분지 분석 하에서는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결과성 문장의 동사는 비결과성 문장의 동사가 갖고 있는 논항구조를 논항 하나만을 부가해서 물려준다는 주장이다. 다음 구조가 이를 보여준다.

(17) θ -Grid under the Ternary Analysis

	Basic verb	Resultative verb
water	agent [theme]	agent [theme r-state]
run	agent	agent [r-state]

(16)에서와는 달리 (17)에서는 타동사 *water*가 취하는 의미역이 기본동사로 쓰일 경우나 결과성 동사로 쓰일 경우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 뒤에 오는 NP가 그 동사의 논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동사의 논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필연적으로 동사의 논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절 분석에 있어서

이분지 분석보다 삼분지 분석이 더 타당함을 볼 수 있다.

3.3. PrP 분석

소절 분석이론은 복합술어 이론(complex predicate theory)과 소절이론으로 구분된다. 복합술어 이론은 Chomsky(1955), Bach(1979), Dowty(1978, 1982), Bowers(1983), Jacobson (1983), 그리고 Larson(1988) 등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소절이론은 Chomsky(1981), Stowell(1981)등에서 논의되었다.

(18) I consider John crazy/a f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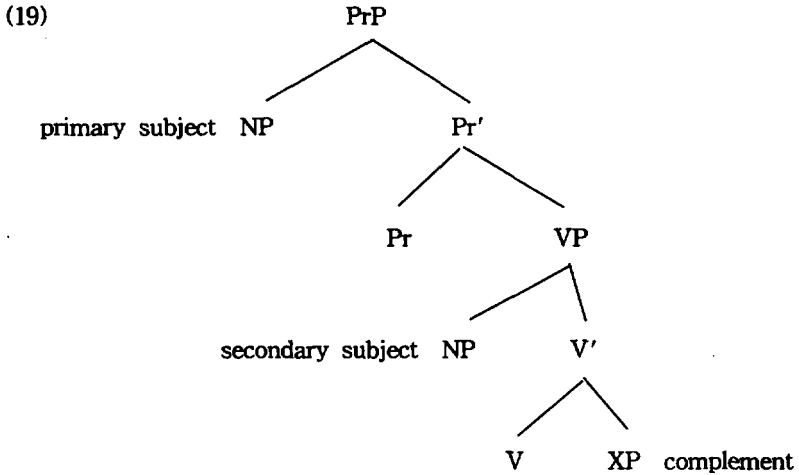
즉 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18)에서 *John*이 복합술어 *consider crazy/a fool*의 직접목적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주장에 따르면 *John crazy/a fool*의 D-구조를 절과 같은 구조로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Bowers (1993:1)는 (18)과 같은 소절의 분석에서 기능범주에 X' 이론을 확장하여 주절과 SC 서술의 구조에서 통일된 구조적 정의와 통일된 의미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내주어 가설(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반영하고; (b) 주절과 SC 서술에 대한 통일된 구조적 정의를 하고; (c) 엄격하게 통일된 두 계층의 X'이론을 유지한다.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기능범주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 새 범주 XP의 X를 Pr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속성을 가진 기능범주로 가정한다: (a) 외주어 논항(external arguments)의 규범적인 D-구조 위치는 [Spec, Pr]이며; (b) Pr⁰은 어느 것이건 어휘범주 Y의 최대투사범주 YP를 기능선택(F-select)하며; (c) PrP는 I⁰에 의해 기능선택되거나 V에 의해 보어로 하위범주화 될 수 있으며; (d) Pr의 의미기능은 서술(predication)이다.

위에서 제안한 이론의 몇가지 장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이론은 외주어 논항 개념과 소절 및 주절에 대한 서술관계에 대한 통일된 구조정의를 제공한다. 정의에 의하여 외주어 논항은 [Spec, Pr]이다. 또 정의에 의해서 [Spec, Pr]의 논항과 Pr의 논항간에 서술관계가 성립된다. 둘째로, 이 이론은 X'이론

의 연구를 안에서 소절을 포함할 적절한 마디를 발견해 준다: SC는 단순히 PrP 즉 Pr의 최대투사 범주다². 셋째로, 이 이론은 통일성 있는 두 계층 (two-level) 설명의 X' 이론을 유지하게 해준다. 넷째로, 만일 Pr의 의미기능이 논리형태 계층에서 서술이라면, 서술의 통사 및 의미관계가 자명해진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PrP의 D-구조를 아래와 같이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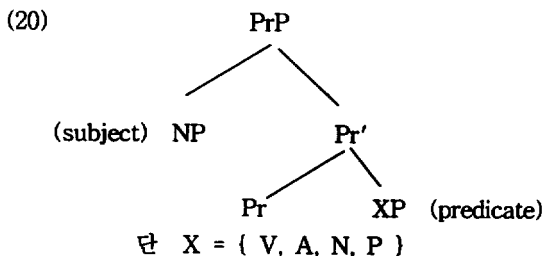


(19)에서 Pr의 Spec 위치에 있는 NP와 V의 Spec 위치에 있는 NP 둘 다 주어로 분석하는데 전자는 일차 주어이고 후자는 이차 주어라고 칭한다. 이 일차 주어가 I의 Spec 위치로 상승하여 외주어 논항이 된다. 위 구조에서 V의 보어인 XP 범주가 될 수 있는 성분중 하나가 소절 즉 Pr이다.

2. 안승신(1996)은 소절구조에서 서술기능을 하는 요소 중에 형용사의 기능을 주로 하여 소절구조를 논하고 있다. 이 형용사를 제 2 형용사 서술어라 칭하고 의미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셋으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 (i). John left the room *angry*.
 - (ii). John ate the meat *raw*.
 - (iii).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 (i) AP는 주어 묘사 서술어(subject depictives, SD), (ii)의 AP는 목적어 묘사 서술어(object depictive, OD), 그리고 (iii)의 AP는 목적어 결과상태 서술어(object resultatives, DR)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의 절보어 중 소절보어를 PrP 기능범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Pr의 최대투사 범주인 PrP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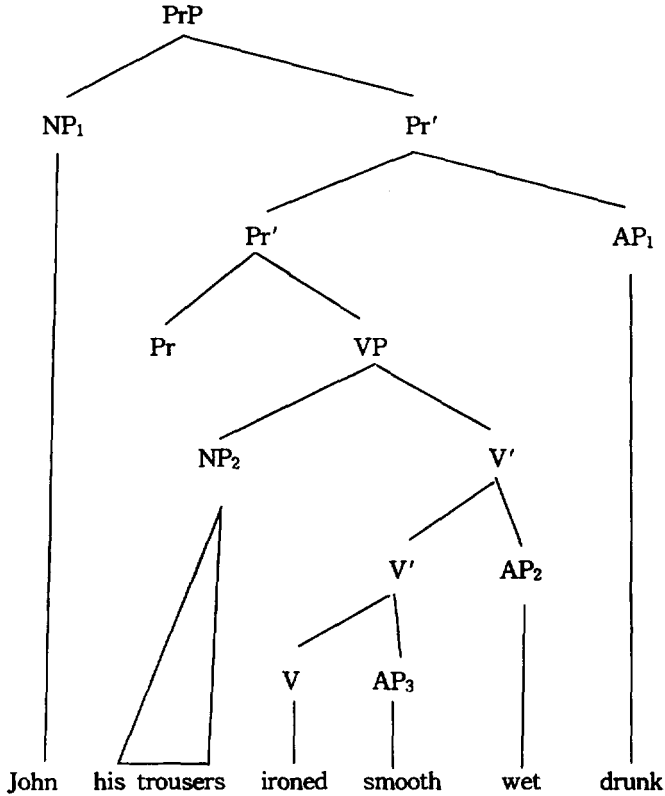
소절을 PrP로 분석한 (20)에서 Pr의 Spec 위치에 있는 주어 NP는 술어 XP를 취하는데 이 XP 성분중 X에 해당되는 어휘핵이 V, A, N, 또는 P이다. 따라서 PrP 가정 하에서는 소절의 규범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이 바뀌어진다.

- (21) a. [IP I'd like to have [PrP you [Pr' [Pr e][PP with me]]]]
- b. [IP I won't have [PrP you [Pr' [Pr e][AP moody all the time]]]]
- c. [IP We'll soon have [PrP you [Pr' [Pr e][NP a new man]]]]
- d. [IP I won't have [PrP you [Pr' [Pr e][VP know that I'm not that kind of person]]]]

(21)의 어휘핵 V, A, N, P를 각각 PV, PA, PN, PP로 분석한 결과가 (22)이다. 즉 (22)는 소절의 술어기능에 따라 XC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소절 전체의 범주는 PrP로 하고, 소절 내의 술어를 그 구조에 따라 PP, AP, NP, 또는 VP로 구분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22)의 분석이 각 소절의 구성성분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Bowers(1993)의 PrP 범주를 수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2) 구조의 타당성을 상호대행사(reciprocal) 문장, 외치문장 및 AP 이동문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위 구조에서 목적어 *his trousers*는 V와 AP₃가 이루는 V'로부터 복합적으로 의미역을 받고, 주어 *John*은 V가 상승한 후에 Pr와 VP가 이루는 Pr'으로부터 행위역을 부여받는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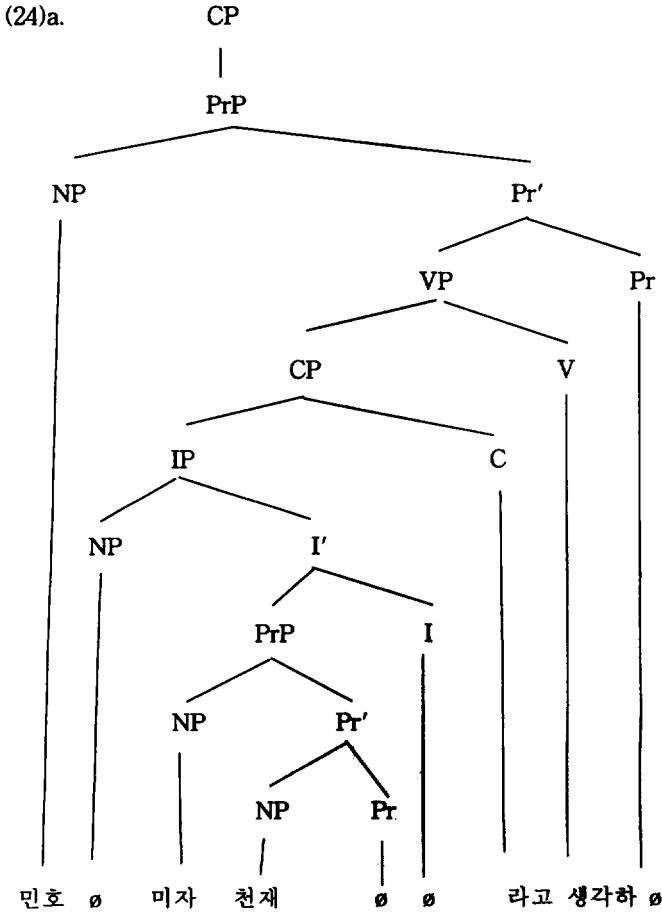
(22) a. John ironed his trousers *smooth wet dru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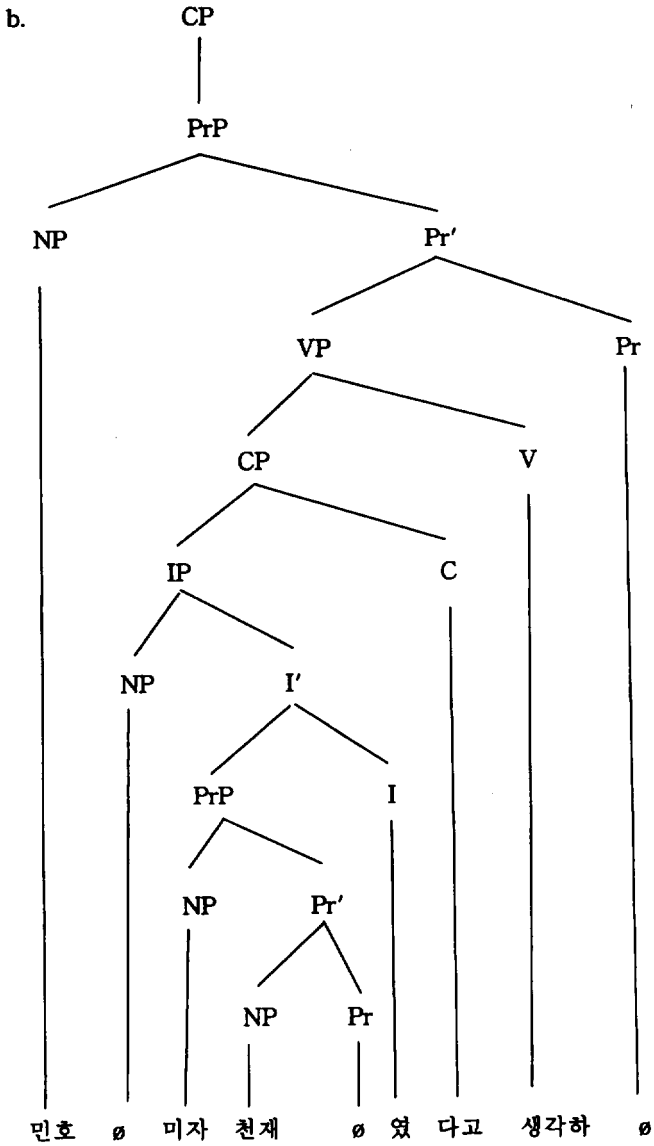
3.4. CP 분석

한재현(1994)에 의하면 PrP 범주의 보편성이 국어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영어의 SC처럼 시제(tense) 없는 문장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서는 어떠한 내포문도 시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하여 내포문의 서술어가 NP인 경우를 살펴보자.³

- (23)a. 민호는 미자가(물) 천재라고 생각한다.
- b. 민호는 미자가(물) 천재라고 생각했다.
- c. 민호는 미자가(물) 천재였다고 생각한다.
- d. 민호는 미자가(물) 천재였다고 생각했다.



3. V'-->V Comp 라는 규칙은 한계현(1981:3)이 설정해서 동사와 보조동사를 연결하는 사이에 Comp의 형태소로 「어,아,지」 등이 실현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먹게」가 V'-->V Comp 로 분석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23a)와 (23b)의 D-구조는 (24a)이고, (23c)와 (23d)의 D-구조는 (24b)라 할 수 있다. 이 두 구조의 차이는 내포문 a에는 시제(tense) 형태소가 없고, b에는 시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3a)와 (23b)에서 내포문의 시제는 형태소가 없지만 상위문의 시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시제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영어의 [him a genius]와 같이 시제가 없는 유형의 소절은 국어의 소절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제 4장에서 논의한다.

그러나 기능범주 I의 보어를 VP가 아닌 PrP로 분석하는 것이 문장구조 분석에 더 편리한 것 같다. 다음으로 [PrP NP AP]의 구조를 가진 내포절을 검토해 보자.

- (25) a. 민호는 미자가(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b. 민호는 미자가(를) 예쁘다고 생각했다.
 c. 민호는 미자가(를) 예뻤다고 생각한다.
 d. 민호는 미자가(를) 예뻤다고 생각했다.

(25)도 (24)와 같은 구조로 내포문의 시제가 본동사의 시제와 같은 것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더 특기할 현상은 (23)과 (25)에서 내포문의 주어인 「미자」가 주격이나 목적격 둘 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자가 예쁘다고]나 [미자를 예쁘다고] 중 어느 것이 내포문장이 되어도 좋은 문장이다. 그런데 영어 *I believe him to be honest*와 *I believe that he is honest*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그 구조에 따라 *him* 또는 *he*로 나타난다. 즉 목적격 *him*이 주어이면 비한정 VP와 결합하고 주격 *he*가 주어이면 한정 VP와 결합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4. 한국어의 서술구 특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소절을 통사적 특성을 IP로 간주한 경우, 삼분지 수행도로 분석할 수 있는 경우, PrP로 분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CP로 분석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소절은 서술구의 일부라는 점에서 본다면 소절 자체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서술구 상호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다

음과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서술구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26) a. 주어-술어 관계가 구조적인가?
 b. 소절은 통사적인 구성소인가?
 c. 소절의 범주유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VP-내 주어(VP-Internal Subject) 가설하에 의미역에 의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주어-술어 관계는 외연 논항에 의미역 표시를 통해 포착한다. 또 통사구조에 따라 의미역(thematic role)의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소절은 어휘핵(i.e., VP, AP, PP, 및 DP)의 최대 투사 범주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소절의 주어 위치에는 허사가 올 수 없고 의미역(thematic) NP만이 올 수 있다는 증거는 다음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27) a. *I consider there a problem.
 b. *I could see there glow two eyes in the shadows.
 (28) a. *I saw there be too many people sick.
 b. *I made there be too many people sick.

(27)에서 보듯이 소절의 주어가 허사 *there*인 경우는 비문이다. 또한 (28)의 소절의 어휘핵 구조가 VP인데 (28)과 같은 비문이 유도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소절의 주어는 주제의 NP만이 올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소절에서는 NP-이동이 없고 예외절에서는 NP-이동이 있다는 데서도 이 두 절의 차이를 볼 수 있다.

- (29) John saw [_{VP} them leave]
 (30) John believed [_{IP} Bill [_{I'} to [_{VP} t have seen Mary]

(29)에서 소절의 주어 *them*은 상승이동을 못하는데 (30)에서 예외절의 주어 *Bill*은 격을 받기 위해 VP 구조 속에 흔적을 남기고 I 구조의 Spec 위치로 상승을 했다. 그러나 소절의 주어가 예외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30)

에서 보여주고 있다. (30)에서 N의 Spec에 있는 주어 *Bill*이 상위동사로 부터 격을 받기 위해서는 D의 Spec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I 공범주 가정은 소절의 술어동사가 시제와 일치소에 의해 굴절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다음 (31a)에서 보듯이 소절의 I 범주의 자질이 [-TNS, -AGR]임으로 소절의 주어가 주격을 할당받지 못한다. (31b)의 소절도 VP 구조 자체가 없으므로 그 주어가 주격을 받을 수 없다.

- (31) a. I consider [him/*he sleeping]
- b. I consider [him/*he honest]

그럼에도 보어소절의 성분이 문장과 같은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 첫째 증거로 소절 주어 자리에 허사 *it*를 대체해도 좋은 문장이 된다.

- (32) a. I consider [*it* time to leave]
- b. I find [*it* inconceivable that he should have gone]
- c. I want [*it* snowing on my birthday]

소절의 어휘적 NP가 주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유동강조 재귀사 (floated emphatic reflexive)가 있는 문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 (33) I consider [the president entirely responsible *him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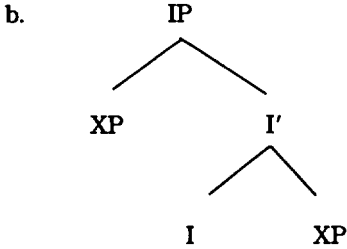
이 유동강조 재귀사는 문법상의 주어만을 선행사로 취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33)에서 그 선행사가 되는 명사구인 *the president*는 소절의 주어임에 틀림이 없다.

소절이 CP 구조가 될 수 없는 증거는 소절의 주어가 IP 범주의 to-부정사절의 주어처럼 NP-이동될 수 있다.

- (34) He was considered [t honest]

이러한 논거를 통하여 IP 범주의 내면구조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한다.

- (35) a. (i) IP --> XP I'
 (ii) I' --> I XP



이렇듯 영어에 있어서 소절구조를 (35)와 같이 분석함으로써 국어의 소절 구조 역시 (35)와 같은 구조에 의하여 분석할 수 있다.

4.1. 주어-술어 관계

우선 주어-술어 관계를 갖는 소절의 경우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적 특성은 대단히 상이하다.

- (36) a. John made the dog furious.
 b. John saw Hary upset.
 c. John ate the meat raw.
 d. John hammered the can flat.

(36)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문장들은 주어+동사+목적어+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사와 다음에 오는 NP 사이의 의미역 관계는 대단히 상이하다. 예컨대 (36)에서는 모든 목적어는 형용사구의 주어라고 할 수 있다. 즉 [the dog is furious]와 같은 관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특히 국어에 있어서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정절 구조를 갖는 경우와 비한정절 구조를 갖는 경우로 소절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37) a. 철수는 [영희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 b. 영희는 [철수가 바보라]고 믿는다.
- (38) a. 개나리가 곱게 피었다.
- b. 영희가 곱게 생겼다.
- c. 아이가 예쁘게 웃는다.
- d. 철수가 신나게 달린다.
- e. 철수가 끈하게 잔다.

즉 (37)과 같은 이른바 불완전 보문구조도 일종의 소절임을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보문절 외에도 (38)과 같은 소절도 있다. 즉 (38)에는 곱다와 피었다라는 두 개의 서술어가 나타나는 이른바 복합 서술어이다. 따라서 각각의 서술어는 논항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38a)의 경우 곱다와 피다의 논항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39) [_{s1}개나리가 [_{s2}개나리가 곱다] 피다]

(39)에서 보는 것처럼 서술어 곱다의 주어는 물론이고 피다의 주어 역시 개나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9)와 같은 자동사 구문에서는 복합서술어의 주어는 본동사의 주어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든 자동사의 경우가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40) a. 철수는 눈이 붓게 잤다.
- b. 철수는 발이 붓게 걸었다.
- c. 철수는 배가 아프게 웃었다.

(40)의 동사 즉 자다, 걷다, 웃다 등은 전형적인 자동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동사가 쓰이는 구문에서도 본동사와 서술어는 항상 주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영현 (1998)에 의하면 (40a)에서 제 2 서술어 4 붓다의 주어는 눈인데 반해서 본동사 자다의 주어는 철수이다. 또한 (40c)

4. 이영현(1998)에서는 소절의 서술어와 본동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소절의 서술어를 제 2 서술어라 칭하고 있다.

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 2 서술어 *아프다*의 주어는 *배*인데 반해서 *웃다*의 주어는 *철수*이다. 이렇듯 본동사의 자동사라고 할지라도 본동사의 주어와 제 2 서술어의 주어가 항상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 (41) a. John promised Mary to go.
b. John persuade Mary to go.

(41a)에서 보는 것처럼 [go]의 주어는 John인데 반해서 (45b)에서는 [go]의 주어는 목적어인 Mary이다. 영어에서도 제 2 서술어의 주어를 본동사의 통사범주에 의하여 결정하기란 곤란하다. 즉 (41)에서 promise는 물론이고 persuade 역시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2 서술어의 주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4.2. 서술어 통사적 범주

다음으로는 소절의 통사적 범주 설정에 있어서 이들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야기된다. Bach(1979)에 의하면 (41)과 같은 구조를 불연속 구성요소(discontinuous constituent)로 간주하고 있다. 즉 (41a)의 promised to go를 하나의 구성요소이지만 본동사와 제 2 서술어 사이에 NP가 삽입되는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동사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promise의 보어는 [to go]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만일에 [to go]를 보어로 간주할 경우에는 삽입되는 명사구 때문에 이들의 결합과정에는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야기됨을 지적하였다.

promise to go 가 결합과정에서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promise to go를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to go]와 목적어 Mary 사이의 관계를 구성요소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통사범주로 간주하느냐이다.

- (42) a. John tried to do it
b. John wanted to go there.

통사론적인 입장과 의미론적인 입장은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통사론자의 입장에서는 동사 *tried*가 보문절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한데 반해서 의미론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의미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 (43) a. John takes a rest for an hour.
- b. John rests for an h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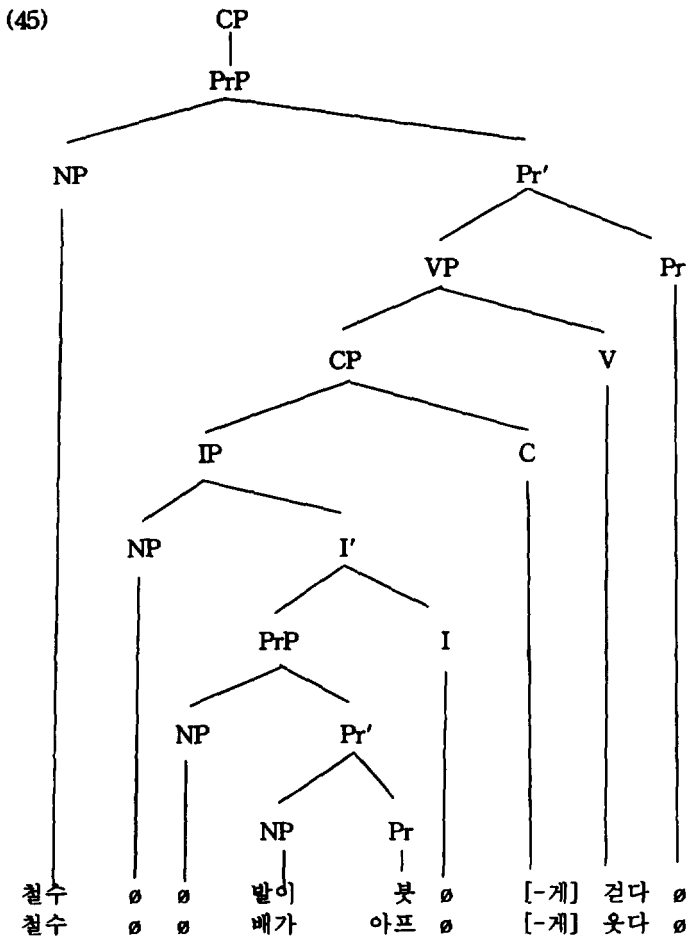
(43a)의 *takes a rest*는 VP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rests*는 V이거나 아니면 V'구조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VP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 두 범주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는 범주 설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2)의 *tried to do* 와 같은 구조는 물론이고 *promised to go*와 같은 서술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절의 서술어는 NP와 더불어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4.3. 소절의 범주유형

Bowers(1993:602)에 의하면 소절 분석에 있어서 기능구조 PrP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국어 소절 분석에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XP 기능을 하는 범주의 X에 해당되는 어휘가 V, A, N, 및 P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영어의 현상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구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PrP NP PP] 구조를 가진 내포절을 보자.

- (44) a. 민호는 발이 붓게 걸었다.
- b. 민호는 배가 아프게 웃었다.

(45)는 (44)의 두 문장의 소절구조를 나타낸 수형도이다. 앞에서 보아온 보문구조와 다른 점은 보문절은 한정절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해서 (45)의 소절구조는 비한정절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사적 범주는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영어의 [him a genius]와 같은 유형의 소절은 국어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능범주 I의 보어를 VP가 아닌 PrP로 분석하는 것이 문장구조 분석에 더 편리한 것 같다. 다음에는 [PrP NP AP]의 구조를 가진 내포절을 검토해 보자.

- (46) a. 민호는 미자가(물) 예쁘다고 생각한다.
- b. 민호는 미자가(물) 예쁘다고 생각했다.
- c. 민호는 미자가(물) 예뻐다고 생각한다.
- d. 민호는 미자가(물) 예뻐다고 생각했다.
- (47) a. 어머니가 아기가 우유를 먹게 하였다.
- b. 어머니가 아기를 우유를 먹게 하였다.
- c. 어머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46)은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47)에서는 시제를 갖지 않는 소절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렇듯 소절의 시제 유무와는 관계없이 PrP 범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홍영예(1994).

(46)과 (47)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비한정적 소절이 국어에 존재한다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50) a. 철수는 얼굴이 곱게 생겼다.
- b. *철수는 얼굴이 생겼다.
- (51) a. 철수는 죽게 되었다.
- b. *철수는 되었다.

만일 비한정적 소절이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50a)의 곱게와 같은 제 2 서술어를 생략할 경우 (50b)와 같은 비문법적 문장이 유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 (52) a. [_{S1} 철수는 [_{S2} 얼굴이 곱다] 생겼다.]
- b. * [_{S1} 철수는 [_{NP} 얼굴이] 생겼다.]

(52)가 문법적 구조기술인데 반해서 (52b)가 비문법 구조기술이라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는 S₂를 내포하는 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S₂가 아닌 NP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₂에는 반드시 제 2 서술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바로 국어의 비한정 소절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소절과 상위절 사이의 의미적 관계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로부터 소절구조 가운데는 한정적 소절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 (53) a. 철수는 발이 붓게 걸었다. ⇒ 발이 부었다.
 b. 철수는 배가 아프게 웃었다. ⇒ 배가 아팠다.

이영현(1998)에서는 (53)의 화살표 오른쪽 명제적 관계를 귀결적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화살표 왼쪽의 명제와 오른쪽 명제 사이의 관계가 귀결적이거나 아니냐의 문제는 논의로 하고라도 이들 사이의 명제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바로 화살표 왼쪽의 명제에는 비시제절 즉 비한정적 소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절의 범주유형은 (45)의 분석에서 보인 것처럼 PrP 기능범주 유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서술구 가운데는 명제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명제적 표현 가운데는 보어절 구조를 갖는 경우와 소절 구조를 갖는 경우로 구분된다. 특히 소절구조에 관한 통사 의미적 특성에 관한 종래의 논의에 몇가지 문제점이 노정 되었다. 첫째로 소절의 통사 구조 분석에 있어서 IP분석, 삼분지 분석, PrP 분석 그리고 CP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분석 가운데 PrP 분석이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소절구조를 분석하는데 합당함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영어의 소절과 보어절 구조에서 시제의 선택은 수의적인데 반해서 국어의 소절은 비시제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특히 국어의 소절 가운데 생기다, 되다와 같은 서술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소절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로 간주된다. 그리고 종래의 부사적 표현으로 간주하였던 비한정 수식구조 가운데 소절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본동사 구문과 비한정 표현의 함의 관계에 의하여 입증하였다.

그러나 소절에 대한 명시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절의 의미적 특성이 서술구조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제 2 서술어에 의한 것인가를 밝히는 문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김영현. 1992. 영어보문소절의 IP 범주구조 분석. 『언어』. 17권 1호, 21-60.
- 안승신. 1996. 제2형용사 서술어의 통사구조. 언어. 제 21권 제 3호. 한국언어학회.
- 이영현. 1998. 복합동사의 서술성과 귀결성에 관한 연구. 『언어학』. 6-1.
- 한재현. 1981. 『생략과 대응현상』. 서울, 한신문화사.
- _____. 1994. 동사의 소절보어 및 그 구조. 송실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편) 24 집.
- 홍영예. 1994. 사역문에서의 격조사 대체현상.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연구발표논문.
- Bach, Emon. 1979. "Control in Montague Grammar." *Linguistic Inquiry* 10, 515-531.
- Bowers, John. 1983. "Conditions on logical form." *Linguistic Analysis* 11, 27-101.
- _____.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599-656.
- Carrier, J. and J. H. Randall. 1992. "The Argument structure and syntactic structure of resultatives." *Linguistics Inquiry* 3, 173-233.
- Chomsky, Noam. 199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 _____.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Jacobs,R. and P.S. Rosenbaum(eds),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184-221.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6b. *Barriers*. MIT Press, Cambridge, Mass.
- _____. 1991.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s., MIT.
- Dowty, David 1978. "Governed transformation as lexical rules in a Montague Grammar." *Linguistic Inquiry* 9, 393-426.
- _____. 1982. "Grammatical relations and Montague Grammar," in Pauline Jacobson and Geoffrey K. Pullum(eds), *The Nature of syntactic representation*. Dordrecht: Reidel.
- Hornstein, Norbert, and David W. Lightfoot. 1987. "Predication and PRO." *Language* 63.
- Huddleston, Rodney.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Mass. New York.
- Jackendoff, R, S. 1977. *X'-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
- Jacobson, Pauline. 1983. "Grammatical relations." *Papers presented at the 1983 Winter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Minneapolis, Minn.
- Kitagawa, Y. 1985. "Small but clausal." *CLS*, 210-220.

- Larson, Richard.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91.
- Marantz, Alec. 1995. "The Minimalist Program." in Gort Weibelhuth (eds),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Blackwell.
- Radford, Andrew. 1988. *The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 Press.
- Roberts, Ian. 1988. "Predicated APS." *Linguistic Inquiry* 19, 703-710.
- Rothstein, S.D. 1983. *The syntactic form of pred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Stowell, Tim.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_____. 1983. "Subjects across categories." *Linguistic Review* 2, 285-312.
- Travis, Lisa. 1988. "The syntax of adverbs." *Paper Presented at NELS* 19, Itaca, N.Y.
- Williams, Edwin.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203-238.